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권 기 범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일상의 기억을 통한 회화표현 연구

2018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동양화과
이 정 민

일상의 기억을 통한 회화표현 연구

권 기 범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동양화과

이 정 민

인 준 서

이정민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7년 11월

심사위원장_____ (인)

심 사 위 원_____ (인)

심 사 위 원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본 논문은 일상의 기억을 통해 내재되어 있는 형상들과 삶 속에 마주하였던 외재적 형상들을 담아낸 본인의 작품에 대한 연구이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작품들을 대상으로 하며, 작품의 내용과 조형적 회화 표현양식을 중점적으로 연구하였다.

인간은 일상에서 수많은 관계들 속에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자각하며 살아간다. 또한 인간은 경험을 통해서 다양한 감정을 느끼며 이러한 것들은 인간의 잠재의식 속에 기억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된다. 지나간 과거의 시간들은 중요하지 않게 여겨지고 잊히기도 하지만 기억을 깨움으로써 과거를 되돌아 볼 기회를 준다.

예술가는 일상에서 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맺으며 이를 통해 자신의 정신적, 물리적 활동의 산물들을 일상 속에 남긴다. 즉, 예술가는 본인만의 장소, 문화, 환경 등 일상속의 기억된 형상들을 본인만의 표현으로 표출함으로써 예술세계를 창조한다.

본인은 일상의 기억에 대한 자율적인 드로잉을 매개체로 내면 안에 쌓여있던 감정들과 심리상태를 드러내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인의 존재의식과 자아 정체성을 깨닫게 되었다. 또한 이 같은 회화 작업과정은 일상을 지내면서 놓치고 살았던 주변의 모습과 잠재되어 있던 기억, 그리고 평범한 일상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고 성찰의 시간을 가지게 해주었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II. 본론	3
1. 일상 속의 기억	3
2. 낙서(graffiti art)와 드로잉	5
3. 본인 작품 분석	7
1) 드로잉을 바탕으로 한 “내재적 표현”	7
2) 드로잉을 바탕으로 한 “외재적 표현”	16
III. 결론	23

참고문헌

ABSTRACT

작 품 목 차

【작품 1】 Drawing 부분, 장지에 혼합재료, 160x132cm, 2011	8
【작품 2】 Drawing 부분, 장지에 혼합재료, 160x132cm, 2011	9
【작품 3】 <落서Ⅳ>, 장지에 혼합채색, 160x132cm, 2015	10
【작품 4】 <落서Ⅰ>, 장지에 혼합채색, 160x132cm, 2012	11
【작품 5】 <落서Ⅵ>, 판넬에 혼합채색, 160x132cm, 2015	13
【작품 6】 <落서Ⅱ>, 장지에 혼합채색, 160x132cm, 2013	14
【작품 7】 <落서Ⅲ>, 장지에 혼합채색, 160x132cm, 2014	15
【작품 8】 Daddy's Flower, 장지에 혼합재료, 160x132cm, 2015	17
【작품 9】 소풍, 판넬에 혼합재료, 160x132cm, 2015	19
【작품 10】 Drawing, 판넬에 혼합재료, 160x132cm, 2015	20
【작품 11】 숨, 판넬에 혼합재료, 160x122cm, 2016	22

I. 서 론

본 논문은 ‘일상에서의 기억’이라 하는 사고 안에 자율적인 드로잉 속에서 표현하는 내재적 형상들과 또한 기억을 통해 잊고 살았던 유년시절의 추억과 아쉬움, 그리고 우리의 삶의 평범한 일상들의 이야기들인 외재적 형상들을 회화작업으로써 표현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수많은 예술가들은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작품을 통해 그들이 살아온 환경이나 배경 또는 일상적인 기억의 소재들을 바탕으로, 잠재된 내면세계, 다양한 감정, 인간의 기억 등을 구상적 또는 추상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그들의 존재를 인지하기도 한다.

독일의 예술이론가이자 교수인 루돌프 아른하임(Rudolf Arnheim, 1904~2007)은 ‘예술작품이 갖추고 있는 현실적 측면은 사실상의 정보로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며 이를 창조하고 수용하는데 있어서 인간의 정서 또는 기억과 감정이 큰 영향을 차지한다.’¹⁾고 말하였다. 이는 인간의 내면에 대한 정서나 감정 혹은 기억들이 예술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며 작품으로 표현하는 행위가 그들의 존재와 자아에 대한 표현인 것이다.²⁾

본 연구의 진행은 본인의 작품분석에 앞서 일상에서의 기억의 의미를 먼저 연구하며, 본인의 자율적 표현방법인 낙서와 드로잉에 대해 알아본 다음, 본인의 작품 분석으로 진행된다.

본문 제1장에서는, 기억을 통한 일상으로 기억에 대한 정의와 일상에서 기

1) 루돌프 아른하임(Rudolf Arnheim), 김재은 역, 「예술심리학(하)」,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84, pp443~444,

2) 김현수, 「기억을 통한 감정표현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2015, p1

억이 어떠한 의미인지에 대해 연구한다.

본문 제2장에서는, 본인의 주된 자율적인 작업 표현방법인 낙서와 드로잉의 개념과 특징들에 대해 알아본다.

본문 제3장에서는, 본인의 작품 분석을 통해 작품의 내용과 표현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먼저 본인이 작업을 시작하게 된 동기와 배경, 작업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설명한 다음, ‘내재적 표현’인 <落서>시리즈로 자율적인 드로잉 작업과정과 조형적 표현방식에 대해 다룬다. 마지막으로 ‘외재적 표현’에서는 일상에서의 기억들과 감정들로부터 만들어진 작품에 대한 내용설명과 함께 조형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 연구해보고자 한다.

II. 본 론

1. 일상 속의 기억

기억이란 인간이나 고등동물 등의 생활체(生活體)가 과거의 경험을 어떠한 형태로 간직되었다가 시간이 지난 후 재인식(再認識) 또는 재생되어 나타나는 현상을 의미한다.

기억은 과거의 경험에서의 형상과 내재된 감정, 흔적들을 내포하는 것으로 이들은 서로 관계되어 회상과 망각의 상호작용을 통해 지속적으로 존재한다.

인간기억의 유형으로는 감각자극의 물리적 특징에 대한 정확한 표상을 잠시 동안 유지하다가 급격하게 소멸되는 감각 기억(sensory memory)과, 저장용량이 제한되어 있어 대략 7개 정도의 항목을 기억할 수 있는 단기 기억³⁾(일차적 기억, primary memory)이 있다.

단기 기억은 대체로 정보를 20~30초 정도 저장하며 정보에 대한 주의 및 집중에 따라 장기 기억으로 전이가 가능하다. 장기 기억(long term memory)은 단기 기억 속에 들어온 정보가 반복시연(反復試演, rehearsal)의 과정을 거쳐 장기 기억 속으로 들어오게 되고 장기기억은 몇 분에서 혹은 평생 동안 정보를 보존하며 용량에도 제한이 없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무수히 많은 경험과 관계에 의해 기억들을 쌓아간다. 인간에게 있어 기억은 어떤 식으로든 현재의 나를 결정짓는데 많은 부분을

3) 김중석, 「기억의 단편(斷片)과 단편의 집적(集積)으로 접근한 존재에 관한 고찰」,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논문, 2010 p10.

차지한다.⁴⁾

기억은 일상생활에서 널리 행해지는 인지의 하나로써 단순한 지적 기능 뿐만 아니라 개인의 다양한 지적, 사회적 활동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오스트리아의 정신병리학자인 프로이트(Freud, Sigmund, 1856~1939)에 의하면, 인간은 유아기에 잃어버린 기억의 회귀를 열망하고 또 실제로 꿈과 여러 경로를 통해 기억이 회귀하기 때문에 예술은 기억에 의하여 과거의 경험으로 돌아갈 수 있는 하나의 통로를 제공한다.

기억은 인간의 과거에 대한 모든 것을 현재화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인간에 의해 만들어지고 기록되는 역사적 산물로도 간주할 수 있다. 혹은 인간의 무의식에 저장되어 있지만 어떠한 자극을 통해 발현될 수 있는, 무한한 정보의 공간이라 할 수 있다.⁵⁾ 즉, 기억이란 과거의 경험으로 형성되는 산물로, 현재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과거와 현재의 연결 매개체이다. 또한 한 생명체가 가지는 고유한 일생에 관한 기록이다.⁶⁾

4) 김영미, 「일상적 도상의 병치에 나타난 현대인의 상황」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95, p17

5) 최문규 외 6명, 「기억과 망상」, 서울: 책 세상, 2003, p361

6) 정혜윤, 「일상의 기억을 드러내는 묘사와 표현에 관한 연구」, 인천대학교 일반대학원, 2017, pp3~4

2. 낙서(graffiti art)와 드로잉

낙서화란 벽이나 그 밖의 화면에 긁거나 스프레이 페인트를 이용해 그리는 그림으로 그래피티(graffiti art)의 어원은 ‘긁다, 긁어서 새기다’라는 뜻의 이탈리아어 ‘graffiito’이다.

낙서는 장난기 있는 단순한 손놀림이 아니라 자기만의 만족스러운 표현 활동이며 의미 없는 낙서에 의미를 붙이고, 그 행위 자체를 중요시하므로 작품으로서의 결과에 치중하기 보다는 무의식적인 행위에 의한 전개과정을 중요시한다.⁷⁾

낙서를 통한 작품들에는 그것을 표현하는 사람들의 솔직함과 자유로움이 담겨 있다.

낙서(graffiti art)란 내면적 형상을 자유롭게 표현하고자 하는데서 나오는 일종의 태도로써, 의식적이거나 혹은 무의식의 표현이다. 또한 주관성을 지니는 낙서는 내면 깊은 곳의 감성과 즉흥적 형상과 기억을 꾸밈없이 표현한다.

드로잉(drawing)의 어원은 프랑스어인 데생(dessin)이며, 이 말의 사전적 의미는 소묘, 그림, 도면, 설계도, 제도, 도안, 디자인 등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드로잉을 소묘로 인식해왔다. 그 이유는 근대기에 일본이 서구의 조형어법을 들어오는 과정에서 잘못 번역했던 것이 그대로 우리나라로 유입되어 굳어진 결과이다. 드로잉이 단순히 소묘를 지칭하는 말로 인식되다보니 그 말이 가진 본래의 뜻과는 다르게 매우 제한적이며, 단순한 표현방법으로 치부되어 왔다.⁸⁾ 하지만 현대의 드로잉은 단순히 “선을 긋는다.”는 지

7) 조신자, 「신표현주의에 나타난 낙서화에 대한 고찰」,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93, p38

8) 이태강, 「드로잉의 확장(擴張)된 표현을 통한 작품의 형식 및 기법연구」, 서울시립대학교

극히 물리적인 행위에서부터 “형상의 구축”이라는 보다 구상적 요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다시 말해 더 이상 밑그림이라는 전통적인 드로잉의 개념에서 벗어나 감정과 생각을 전달할 수 있는 회화의 범위로까지 확장되었다. 즉 드로잉은 어떤 장르와도 구별하기 힘든 광범위한 방법적 다양성을 형성하며 여러 개념을 내포한다.

프랑스의 미술사가이자 평론가인 르네 위그(Rene Huyghe, 1906~1997)는 “예술가가 행하는 모든 창조적인 행위 중에서 가장 직접적이고, 자동 발생적이며, 이해하기 쉬운 것은 드로잉이다. 이것은 또한 예술가가 자기의 내부에서 느끼고 있는 정도에 그쳤던 것에 미래의 형태를 부각시켜주는데 있어서 가장 먼저 사용되는 수단이기도 하다. 그것은 또 예술가의 신경 및 근육 구조가 가장 즉각적으로, 가장 자연발생적으로 기록되는 부분이다”⁹⁾라고 말하였다. 이처럼 드로잉은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의식과 신체의 에너지까지 외부로 직접적으로 표출하는 행동이자 수단이며, 추상적인 생각을 움직임의 통해 화면위에 표현하는 기록이다. 이렇듯 낙서와 드로잉은 어느 정도 조형 목적을 가지며 자유롭고 솔직하며 거침없는 표현성을 갖는다.

대학원 석사논문, 2016, p4

9) 르네 위그, 김화영 역, 「예술과 영혼」, 서울, 열화당, 1986, p35

3. 본인 작품 분석

1) 드로잉을 바탕으로 한 “내재적 표현”

본인은 어린 시절을 보낸 후에도 선택이라는 기로(岐路)에 있어서 ‘자아’ 스스로가 아닌 ‘타인’에 의하여 ‘자아’의 사유와, 행동양식이 결정되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로 인해 본인은 ‘자아’ 결핍으로 주체성과 독립성이 결여되고, 그만큼 ‘자아’ 자체에 대한 애정(愛情)과 자존(自存)감이 결여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본인 존재에 대한 혼란은 작업에 까지도 이어지는데, 오랜 시간 동안 본인은 하얀 화판을 채워야 한다는 강박감과 무언가를 표현해야 한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

타인들보다 조금 늦게 시작한 미술의 입시환경 속에서 그만큼 작업 수준을 맞춰가야 하는 상황은 스스로에 대한 억압과 자아의 위축으로 이어졌다. 그로 인해 생긴 상처들은 대학교 입학 후 표현의 자유로움이라는 선물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의 구속받은 기억과 감정들을 온전히 벗어 던질 수 없게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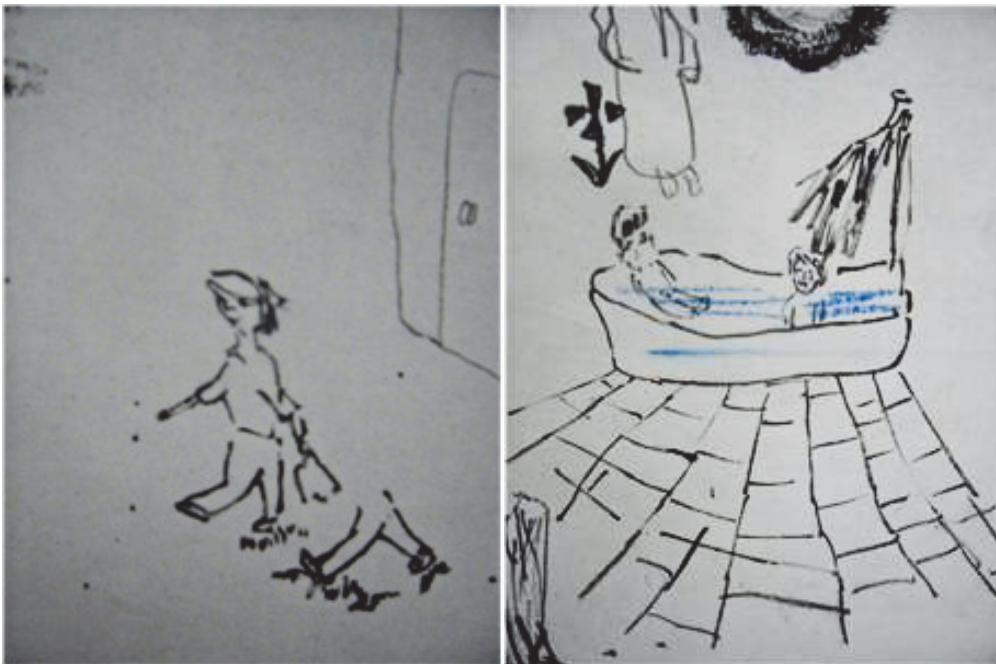
미술이라는 전공을 선택함에 있어서도 본인 스스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부모님에 의해 결정되어 졌으며, 결국 학부 3학년 시절 전공에 대한 끊임없는 갈등과 자존감의 상실로 인하여 학업을 중도 포기 직전 까지 가게 되었다. 하지만 결국엔 타인의 조언과 용기로 인하여 처음으로 누군가의 강요 또는 앞에 놓아진 환경 때문이 아닌 온전히 본인 스스로 다시 화판 앞에 앉게 되었다.

그리고 이렇게 오랜 시간 방황 끝에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었던, 자아 안에 서만 담고 앓았던 이야기들을 부러진 나뭇가지, 반쯤 남은 연필, 잉크가 얼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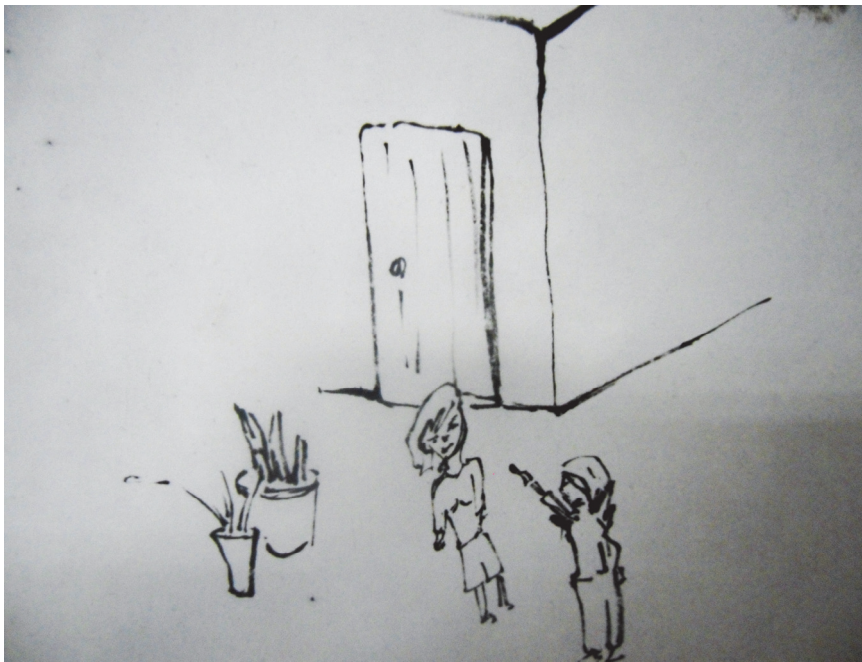
남지 않은 펜과 같이 의도의 인해 준비된 재료들이 아닌 쉽게 마주친 자연스러운 재료들로부터 조금씩 풀어나가기 시작했다.

회화 작업이란 틀에 박힌 계획과 준비된 에스키스 같은 필연적 요소가 있어야만 화판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의식을 배제한 채 우연함으로 인해 나타나는 형상들은 본인이 스스로 억누르고 담아왔던 모습과 기억들이 몇 개의 기호들로 표현되고, 이러한 기호들은 본인 안의 탈출구 같은 개념이 되었다.

아래 【작품 1】, 【작품 2】 작업의 시작은 순간적으로 팽팽하게 딱 떨어진 화판이 없을지라도 구겨지고 버려진 종이와 연필이나 잉크만을 가지고 일상의 기억과 기분 또는 심리(또는 영혼) 상태를 즉흥적으로 기록하면서 비롯된다.



【작품 1】 Drawing 부분, 장지에 혼합재료, 160x132cm, 2011



【작품 2】 Drawing 부분, 장지에 혼합재료, 160x132cm, 2011

낙서로 시작된 작업이 <落서>의 회화 작업으로 확장되었다. 【작품 3】 <落서Ⅳ> 落서의 落은 떨어진다는 의미의 落으로서 표면적으로는 어린아이가 장난스럽게 낙서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면적인 이야기에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타인으로부터 혹은 사회로부터 어찌면 본인 자신으로부터, 받은 실망과 절망, 슬픔, 분노 등이 뒤섞인 감정이 담겨있는 중의적인 작품이다.

회화 작업과정 속에서 빼꼼빼꼼한 선들과 조금씩 흐트러진 형상들은 본인이 그동안 스스로 담아왔던 압박감으로부터 벗어나 내재되어 있던 기억들과 형상들이 담겨진다.



【작품 3】 <落서Ⅳ>, 장지에 혼합채색, 160x132cm, 2015

【작품 4】 <落서 I> 작품 속 몇 개의 기호들은 마치 파티에서 춤을 추는 것과 같이 움직이는 형상처럼 보여진다. 하지만 밝은 색감으로 그려진 기호들을 천천히 살펴보면 아이러니하게도 마냥 행복하고 장난스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람인 듯 괴물인 듯한 형상은 초점을 잃은 채 구토를 하고 있고, 한 쪽에는 혈(血)에 물들인 꽃이 있기도 하다. 이러한 기호들은 벼랑 끝에 놓인 ‘자아’ 혹은 어찌면 우리 주변의 타자의 모습을 의미한다.



【작품 4】 <落서 I>, 장지에 혼합채색, 160x132cm, 2012

회화 작업에 있어서 본인에게 ‘우연성’이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개념이다.

<落서> 시리즈는 의식을 배제한 채 온전히 손의 감각으로 가볍게 시작된 드로잉으로부터 쌓고 지우고 숨기고 또 다시 덮는 무의식(無意識)과 우연성(偶然性)이 공존하는 작업 과정을 통해 잠재되어 있던 기억속의 형상들이 기호를 통해 나타나고, 기호들 간의 충돌로 인해 새로운 기호가 나타난다. 이러한 반복적인 작업과정을 통해 겹겹이 층이 생겨 완성된 회화 작업이다.

어느 날 문득 본인의 작업과정 속에서 ‘장지 위에 꼭 작업을 해야 하나?’라는 의문을 갖기 시작하면서 당연한 듯이 습관적으로 두꺼운 장지 위에 잣소를 바르고 수 없이 그리기와 지우기를 반복하는 과정 안에서 장지라는 물성의 필요성에 대한 의구심(疑懼心)이 생겼다.

그러던 와중에 본인은 한 쪽 구석에 몇 년 전 작업했던 작품의 장지를 우연히 걸어내었더니 두겹게 쌓여있던 채색은 화판에 일부 배어 있었고, 물들여진 부분위에 다시 새로 채색을 한다고 해도 과거의 채색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우연을 통해 작품의 ‘시간성’이 부여된다. (아래 【작품 5】 <落서VI> 참고)



【작품 5】 <落서VI>, 판넬에 혼합채색, 160x132cm, 2015



【작품 6】 <落서Ⅱ>, 장지에 혼합채색, 160x132cm, 2013

【작품 6】 <落서Ⅱ>의 작업은 본인에게 있어서 어느 작업보다 특히 기(氣)를 온전히 쏟았을 때 가장 진실된 작품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깨닫게 한 과정이었다.

본인과 화면이 일치하는 집중의 몰입 상태로 순간적인 행위를 표현하여 새로운 공간을 창조한다.



【작품 7】 <落서Ⅲ>, 장지에 혼합채색, 160x132cm, 2014

【작품 7】 <落서Ⅲ> 드로잉의 기본은 본인이 채집한 사진, 또는 타인에 의한 매스커뮤니케이션 없이 온전한 자율적인 드로잉이다. <落서>에서는 본인 안에 내재되어 있던 형상과 기억들이 자율적인 드로잉을 통해 드러난다.

<落서>에는 숨겨진 심오한 이야기나 사회적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진 않지만 <落서>안에는 본인이 가장 솔직하게 표출할 수 있는 형태의 작업이다.

2) 드로잉을 바탕으로 한 “외재적 표현”

학부 졸업 후 처음으로 사회에 나가게 되어 새로운 많은 사람들과 마주치게 되고 대화를 하면서 작업 또한 일상 속에서 받은 상처들로 인해 내재되어 있던 부정적인 형상들 뿐 아니라 우리 주변의 모습과 평범한 일상의 기억을 소재로 자연스럽게 전이되었다.

몇 년 동안 학교와 집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오고가며 반복적이고 익숙해져 있는 삶을 벗어나 세상에 나와 보니 그동안 알 수 없었던 혹은 놓치고 살았던 일상생활의 모습들과 기억들이 되살아났다.

본인은 어린 시절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부모님이라는 커다란 울타리 안에 받는 것에만 익숙해져 있을 뿐 본인이 부모님을 바라보는 시간은 없었다.

어느 날 항상 바쁘시고 커다란 존재로만 느껴졌던 아버지께서 은퇴를 앞두고는 화단에 꽃을 심어 가꾸시는 모습을 보았다. 아버지의 그 마음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마도 꽃을 심음으로서 작은 생명체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며 그동안 가족을 위해 또는 소속되어있던 회사를 위해 살았던 시간들에 대한 허망함과 외로움을 위로받고 계신 것 같았다.

본인은 아래 【작품 8】 <Daddy's Flower>의 작업을 통해 아버지의 삶을 조금이나마 느끼며, 지금까지 가족을 위해 희생만 하며 지내오신 아버지에 대해 본인이 드릴 수 있는 작은 선물의 의미를 담아냈다.



【작품 8】 Daddy's Flower, 장지에 혼합재료, 160x132cm, 2015

본인은 순간에 일어나는 일상의 모습들을 스냅사진으로 포착하여 화판에 옮긴다. 하나 둘 씩 모아진 기록물들은 회화작업에 있어서 밑거름이 되며 연필, 수성펜, 붓 등을 통해 그때의 그 기억 감정 모습 등을 화판에 재해석한다.

아래 【작품 9】 <소풍>이라는 작품 속 인물들은 본인이 여행 중 주말 오후에 어느 한 공원에서 엄마와 아이들이 소풍을 즐기는 모습을 보고 표현 한 작품이다. 그 당시 본인은 스냅사진을 통해서 장면을 기록하였다. 일상으로 돌아와 필름을 인화해 보았더니 인물들의 모습의 윤곽이 모두 흐릿하게 나왔다.

회화작업으로 넘어와서 흐릿해진 인물들의 모습과 표정을 본인의 상상 속에 재현해보려 하였지만, 본인은 흐릿하게 나온 인물들의 표정을 통해 가족 간의 소통을 작업 방향으로 잡았다.

바쁜 현대 사회에 살다보면 가족이 저녁시간에 식탁에 둘러앉아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하루에 있었던 일과를 이야기하는 그 시간은 이제는 일상의 당연한 모습이 아니며 그 시간을 위해 어느 정도 각자 희생을 감수하고 모이게 된다.

【작품 9】에는 유년 시절 주말이면 엄마 아빠 손을 잡고 가까운 공원이라도 나들이를 갔던 그 때 그 시간에 대한 그리움과, 이제는 다 같이 식사 할 시간 없이 각자 자리에서 바쁘게 살아가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과 아쉬움에 대한 감정이 담겨 있다. 한편 이 작업의 조형적 특징에는 ‘여백’의 개념을 상기(想起, Remind) 시킴으로써 제작되었다.

동양화에서는 예로부터 여백을 화면에 두루 퍼져있는 기(氣)의 표상으로 여겼다. 하지만 본인이 작업해 온 지금까지의 작품들을 살펴보면 여백의 공간(餘白, negative space) 부족해 자칫하면 답답함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 만큼 본인은 비워내려는 관념(觀念)보단 채워야한다는 강박감이나 스스로의 대한 의지가 남아있던 것이다.

모든 걸 다 담아내고 이야기하려는 본인(작가)의 욕심이 화면 안에서 그

대로 담겨져 오히려 본인이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작품 9】 <소풍>을 보면, 인물 또는 대상이 가운데로 집중됨에 있어서 여백의 기능을 가지게 된다. 즉, 여백(餘白, negative space)은 인물이나 대상과 같은 실제 형태(positive shape)와 함께 화면을 채우는 공간(空間)으로서 그 자체로 하나의 ‘형태’로서의 의미를 가진다.¹⁰⁾ 또한 비어있음(虛)은 온갖 변화를 그 속에서 창출하면서 채워진 공간(實)이 진정한 충실의 상태에 이를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¹¹⁾



【작품 9】 소풍 , 판넬에 혼합재료, 160x132cm, 2015

10) 진정식, 「여백에 관하여」, 『2004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제2권 제1호)』, 한국콘텐츠학회, 2004, p121

11) 이재복, 「허(虛)의 개념에 입각한 중국의 회화예술」, 『미술세계(통권 66호)』, 1990, p93

본인은 평소 또는 여행을 갔을 때 특별한 장소가 아닌 평범한 동네에 들어가 각각의 다른 집들의 모습과 골목을 보고 느끼는 걸 즐겨한다.

【작품 10】은 산책 중에 학교 주변 동네에서 보았던 배관 파이프의 모습과 집 앞마당에 너털너털 널려있는 빨래들의 모습, 중국 여행 중 우연하게 들어가게 된 작은 시골동네에서 마주친 인력거와 자전거 등 여러 시간과 장소에서 마주한 평범한 모습들을 연필과 나이프를 중첩시켜 속도감 있는 선과 질감 있는 터치로 표현되어 있다. 그리고 어린 시절 본인 또한 이러한 곳에 살았던 감정들을 더해 각 요소들을 자율적인 드로잉으로 한 화면에 담아낸다.



【작품 10】 Drawing, 판넬에 혼합재료, 160x132cm, 2015

본인은 어느 날 사진수업으로 서대문의 재개발 중인 한 동네에 간 적이 있다.

그 곳은 떠나는 자와 남으려는 자가 뒤섞여 동네의 온기가 사라진 모습이었다.

본인 역시 그 당시 재개발을 앞둔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다른 지역의 거주민들이 재개발을 앞둔 현장에 오게 된다면 ‘이런 곳에도 사람이 살까?’, ‘생활하는데 있어서 위험하진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할 것이다.

본인 또한 서대문의 재개발인 동네에 갔을 당시 ‘어떻게 이런 곳에서 생활이 가능할까?’라는 느낌부터 받았다.

하지만 동네를 천천히 걷다보니 이 곳 또한 남아 있는 자들의 삶의 흔적의 모습과 비록 사람의 손길이 닿은 지 오래된 발이지만 그 안에서 다시 피어나는 잡초들과 들꽃들의 모습이 보였다.

이전 작품들은 ‘선’으로 나타난 대상을 연필과 나이프를 중첩하여 속도감 있게 표현하고, ‘면’으로 나타난 대상은 질감과 입체감 있게 표현했다. 반면 아래 【작품 11】에서는 대상들을 나이프보다는 세필 붓과 채색 붓 등 다양한 붓으로 한층 부드럽고 차분하게 표현하고자 했다.

본인은 【작품 11】의 작업 과정을 통해 본인 또한 재개발을 앞둔 아파트에 살고 있으면서도 색안경을 끼고 바라본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끼며 각성의 시간을 가졌다.

그 곳 또한 우리가 지금 있는 여기와 다르지 않게 ‘숨’ 쉬고 있는 공간인 것이다.



【작품 11】 숨, 판넬에 혼합재료, 160x122cm, 2016

Ⅲ. 결 론

본 연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내면 안에 내재되어 있던 형상들을 자율적인 드로잉을 통해 표현하는 <落서>시리즈와, 일상 속에서 보고 느끼고 기억되어 있던 외재적인 형상들을 표현하는 새로운 드로잉 회화표현 연구에 대하여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제작된 작품을 대상으로 조형적 특징과 표현기법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논문이다.

장대한 것이 아닌 평범한 일상에서의 경험과 기억을 소재로 하여 예술 작품의 작업동기로 삼는 것은 모더니즘 이후 지속되어 온 현상이며, 일상과 예술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은 많은 예술가들의 관심거리이다. 본인 역시 일상의 기억과 경험들을 소재로 작업을 진행해왔으며, 이러한 작업과정을 통해 자아 성찰과 놓치고 살았던 일상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었다.

본 연구의 진행은 본인이 그림 그리는 태도, 혹은 방법론부터 시작하였다. 그리고 어떤 동기로 화판 앞에 앉게 됐는지 그로 인해 어떤 메시지를 남기는 지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진다.

<落서>시리즈의 내재적 형상 표현과정을 거쳐 조형적 요소들과 표현방법을 체계화하였다.

무의식(無意識)과 우연성(偶然性)의 공존 속에 나온 선과 형상들은 자아 혹은 타인에게 깊숙이 박혀 있는 기억에 대한 감정들과 심리상태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드로잉으로 탄생한 가장 솔직한 모습이며, 이러한 자율적 드로잉 또한 회화의 한 영역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학부 졸업 후 작가로서 미래를 결심하고, 현재까지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 연구 중인 회화 표현방법은 본문에 설명한 바와 같이 ‘일상에서의 기억’을 소재로 작업하고 있는 드로잉에 관한 연구이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보다 체계적인 분석과 객관적인 시각으로 작업을 바라보는 태도를 통해 본 연구의 내재적 혹은 외재적 형상들 뿐 아니라 일상 속 혹은 사회적인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서로가 공감할 수 있는 작품으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 진정식, 「여백에 관하여」, 『2004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제2권 제1호)』, 한국콘텐츠학회, 2004
- 최문규 외 6명, 「기억과 망상」, 서울: 책 세상, 2003
- 국립현대 미술관, 「드로잉의 새로운 지평」 열과 알, 2003
- 이재복, 「허(虛)의 개념에 입각한 중국의 회화예술」, 『미술세계(통권 66호)』, 미술세계, 1990
- 최민, 성왕경, 「시각과 언어1」, 서울, 열화당, 1988
- 르네 위그, 김화영 역, 「예술과 영혼」, 서울, 열화당, 1986
- 루돌프 아른하임, 김재은 역, 「예술심리학(하)」,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84

학위논문

- 정혜윤, 일상의 기억을 드러내는 묘사와 표현에 관한 연구, 인천대학교 일반대학원, 2017
- 이태강, 드로잉의 확장(擴張)된 표현을 통한 작품의 형식 및 기법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2016
- 김현수, 기억을 통한 감정표현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2015
- 김현정, 자화상을 통한 내재적 형상표현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5
- 김선, 일상의 이미지를 통한 기억의 재구성, 홍익대학교 대학원, 2013
- 김중석, 기억의 단편(斷片)과 단편의 집적(集積)으로 접근한 존재에 관한 고찰,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2010

- 이은숙, 기억에 관한 일상 사물의 형상화, 홍익대학교 대학원, 2008
- 김복배, 드로잉을 통한 유연성과 자율적인 표현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대학원, 2005
- 신희영, 순간의 흔적: 드로잉 화된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2002
- 김미연, 낙서화의 조형성 연구, 성균관대학교대학원, 2000
- 김영미, 일상적 도상의 병치에 나타난 현대인의 상황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95
- 조신자, 신 표현주의에 나타난 낙서화에 대한 고찰, 충남대학교 대학원, 1993
- 김영태, 현대미술에서의 드로잉 연구, 전주대학교 대학원, 1990

ABSTRACT

A study on painting expression through memories in daily lives.

Lee Jeong-min

Department of Oriental painting

Graduate School of

Sungshin University

This study is about my work which is about internal and external forms based on my daily lives. The work focused on the contents and formative techniques completed from 2012 to 2016.

People experience and recognize various things in daily lives. Also, they feel various feelings from their experiences and these feelings are stored as "memories" on subconsciousness. Normally, the past time is not considered as important and easily disappeared but, it gives a chance to reminisce the past.

Artists build a different types of relationships as member of society, and they leave their psychological and physical works in their life. In other words, artists create their works that are stored from their place,

culture, and environment using their own expressions.

I expressed my cumulated emotion and internal mind using autonomous drawing from my daily memories. Through these process, I realized my consciousness of existence and self-identity. Also, these painting processes gave me a chance to take some time for introspection and to realize the values of the environment, stored memories, and ordinary life which are easily disappeared from my memory.